

MUSEUM LEADERSHIP
& GOVERNANCE

2022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미술관 리더십과
거버넌스



일시
2022. 7. 22(금) 14:00

장소
박수근미술관



공동주최



후원



2022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미술관 리더십과 거버넌스]

일시: 2022. 7. 22(금) 14:00
장소: 박수근미술관

공동주최: (사)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박수근미술관
후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14:00 - 15:20

p.3

개회사

류승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부] 한국의 미술관 리더십과 거버넌스,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 김선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p.4

한국에서 미술관 리더십과 거버넌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이유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p.5

박수근미술관,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더십 사례

엄선미, 박수근미술관 관장

라운드테이블

김보라(성북구립미술관 관장), 정현(미술평론가, 인하대학교 교수),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 전 경기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 이민하(중앙대학교 교수), 김주영(2021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 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5:30 - 17:00

[2부] 자유주제 발표

손재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p.6

미술관 전시관람 경험형성에 미치는 SNS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수인,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p.7

의료 분야 문화매개자 역할 사례 연구: 영국 '링크 워커(Link Worker)'를 중심으로

조은시,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박사과정

p.8

메타버스 기반 뮤지엄 전시의 재매개에 관한 연구

김원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p.9

낙후지역 비영리 전시공간이 신진 작가 성장에 미친 영향: 행궁동 대안공간 눈 사례를 중심으로

장신정,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p.1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가치: 시각예술영역을 중심으로

문희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p.11

인천시립미술관이 부재한 현 인천 미술의 연구 방향

최희연, 김해나, 오은서, 유지수,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17:00 - 18:30

[3부] 박수근미술상 수상 전시 관람 및 레지던시 방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류승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류승완입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문화예술계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아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었고, 이에 따라 우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의 학술행사도 온라인 위주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시작되면서 COVID-19 팬데믹 상태도 어느 정도 종료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의 거리두기와 모임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계도 그동안의 움츠렸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2020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POST COVID-19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한걸음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복귀의 시점에서 우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의 2022년 하계 학술대회를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점에 위치한 양구군의 군립 박수근미술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계가 다시 도약하고 비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국토의 정중앙인 양구와 같이 문화예술계의 중앙에 서서 다시 도약하는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앙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이민하 학술위원장님, 박신의 교수님과 학회 임원분들과 조직위원분들,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여러분,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엄선미 관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해주신 학회 회원분들과 문화예술전공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사)문화예술경영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민하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위원장 류승완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위원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엄선미 박수근미술관 관장
이영현 박수근미술관 큐레이터
장웅조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디자인 류유희 (주)디버 디자인 파트장

한국에서 미술관 리더십과 거버넌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이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신의

한국의 공공미술관은 국립이 4개이고 공립이 74개에 달한다. 앞으로 지역별로 건립예정인 미술관을 감안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적 팽창 속에서 더욱 절실한 것은 미술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수월치 않다. 무엇보다도 미술관 관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술관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거버넌스 구도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 국공립미술관의 법적 지위와 이에 따른 운영조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은 책임운영방식제를 포함한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직접 운영체제이다. 따라서 조직 구도 자체가 행정과 학예로 나뉘면서 전반적으로는 관리체제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장과 학예실장, 학예사 일부는 공모로 선임하며, 근무 기간은 짧게는 2년에서 3년 단위로, 최대 5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서 관장마다 제각각의 미술관 성격을 구사하고, 그나마도 3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구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소장품 구입을 위한 정책 결정이나 다양한 미술관 활동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자율적인 체계를 만들려고 해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다양한 형태로 지자체의 입김이 작용하고, 예산상의 조율 등도 쉽지 않으며, 때로는 정치적 외압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미술관 리더십과 거버넌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 상황을 방치하기 힘들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법인화 전환에 대한 논의와 미술관 리더십 연구와 교육 시스템 조성, 미술관 거버넌스 구조 논의 확산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박수근미술관,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 더십 사례

박수근미술관 관장
엄선미

2002년 강원도 양구 박수근마을에 건립된 박수근미술관이 어느덧 스무 해를 맞이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선 1기로 선출된 임경순 군수는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과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박수근미술관 건립을 본격화했다. 1997년부터 박수근의 유족과 국내·외 문화예술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박수근선양사업위원회>를 위시하여 수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민선 4기~7기 군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에 대해서 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적인 운영지침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은 타 지자체 공립미술관과 차별화되는 지점일 것이다. 전문성 보다는 행정 우선의 미술관 운영 관리 체제로 임기제 학예직의 잦은 이동은 공립미술관의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미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박수근미술관이 건립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조직, 예산, 콘텐츠(소장품, 전시, 교육, 연구, 레지던시 등), 시설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타 지자체 공립작가미술관과의 비교를 통해 박수근미술관의 운영 차별성에 대하여 언급해 본다.

또한 발표자가 현재까지 13년간 박수근선생의 뜻과 마음을 이어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했던 소신과 보람에 대하여 미술관 운영자 리더십에 견주어 발표하고자 한다. 어떻게 전시공간이 거듭 만들어졌고, 수많은 직원들이 미술관을 들고 나며 일어난 일, 지역사회 안에서 미술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자리매김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소한 일화를 들려주고자 한다.

미술관 전시관람 경험형성에 미치는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박수인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현대인들의 소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SNS에 게재되는 그들의 전시 콘텐츠는 예비 관람객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인플루언서에 의해 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게 되는 관람객의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에 의해 전시를 관람한 전시 관람객 총 6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총 6개의 상위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뉘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예비 전시 관람객들은 SNS 인플루언서의 특성에 의해 그들의 콘텐츠에서 정보 유용성을 지각한다. 둘째, 전시 관람객들은 주류 문화에 참여하려는 욕구와 더불어 자신의 취향을 발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전시 관람객은 SNS 인플루언서의 관람 방식을 모방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면서 경험에 대한 깊이를 다져간다. 넷째, 전시 관람객 또한 정보제공자로 역할이 전환되면서 정보와 관심을 확산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SNS 인플루언서가 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게 관심을 유도하면서 전시 관람객의 경험과 관람동기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전시 관람객의 경험의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SNS 인플루언서가 전시 관람의 각 단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 분야 문화매개자 역할 사례 연구: 영국 ‘링크 워커(Link Worker)’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박사과정

조은시

이 글은 영국의 링크 워커 사례를 통해 문화매개자 영역과 역할이 폭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국내에서 문화매개자는 공공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예술단체 종사자, 지역문화 전문 인력, 생활 예술활동가, 문화예술교육사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반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호주 미주에서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화매개자 ‘링크 워커(link worker)’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매개자의 역할과 범위를 건강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링크 워커는 의료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과 박물관, 공연장, 문화예술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 자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자이다.

링크 워커 사례는 우울감, 고독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매개자의 역할 확대는 기존의 창의성, 여가 중심의 문화예술활동 효과에 더해, 의료 복지비용 절감, 주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메타버스 기반 뮤지엄 전시의 재매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원재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반 전시에 대한 관람객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고는 뮤지엄 전시 경험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Falk & Dierking, 1992)과 매체 간 상호작용을 논한 재매개(볼터&그루신, 1999/2006)를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했다. 이후 직접관찰과 문헌검토를 통해 <힐링동산>, <구글 아트 앤 컬처>, <Musee Dezentral>에 대한 집합적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기반 전시는 기존 뮤지엄 전시의 재매개를 통해 사용자의 몰입과 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관람 경험의 진정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례를 재매개의 이중 논리 안에서 포섭하여, 가상적 맥락이 메타버스 기반 전시 경험에 대한 몰입도를 제고하고, 기존 뮤지엄 전시와의 차별화된 특징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메타버스 기반 전시의 관람객 경험을 가상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논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가상적 맥락의 제시와 재매개적 접근을 통하여 메타버스 기반 전시에 대한 관람객 경험을 개념적으로 이해한 것에 있다.

낙후 지역 비영리 전시공간이 신진 작가 성장에 미친 영향: 행궁동 대안공간 <눈>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장신정

수원시립미술관은 6월 26일까지 두 달 간 행궁동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문화예술 활동을 조명하는 ‘행궁유람 행행행’ 전시를 개최하였다. 과거 부촌이었던 행궁동은 1997년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건축 규제가 심해지고,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많은 주민이 떠나가면서 낙후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 당시 IMF이후 수원에 개인 화랑이 없어진 상황에 신진 작가들은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입시미술 학원을 운영하던 예술인은 2005년 자택을 개조하여 대안공간 <눈>을 오픈하였고, 2019년 초까지 신진작가들에게 전시기회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벽화마을, 레지던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 주민 예술인이 구심점이 되어 자체적으로 일으킨 행궁동 예술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로 손꼽히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작가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관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하여 본 논문은 특별히 이러한 대안공간이 작가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가들의 눈을 통해서 풀어보는 현상학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가치: 시각예술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문희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수행한다.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7년에 55개소로 시작하여, 2022년 6월 기준 8차에 걸쳐 총 3,974개소(3,342개소 활동 중)가 인증을 받았는데, 서비스 분야별로 보자면 ‘문화·예술’이 9.9%(330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문화예술 체험교육, 소외계층 문화나눔, 문화예술 일자리창출 및 소득 증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저변확대,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역사회공헌,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에서 시각예술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를 사회적·경제적·예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에이컴퍼니를 사례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천시립미술관이 부재한 현 인천 미술의 연구 방향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최희연, 김해나, 오은서, 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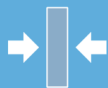
본 발제는 인천의 현재 미술 현장에서 구심점이 되어 줄 시립미술관의 부재와 지속되지 못하는 단발성 프로젝트로 지역 활성화의 순환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대해 인천 지역 내의 미술이론을 전공하는 유일한 대학원 연구자들로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다. 과거 인천은 당시 국내에서 주목받았던 퍼포먼스 아트, 미디어 아트 등 동시대 한국 미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 내 미술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 미술 현장이 아닌 지역민 위주의 생활예술문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공공 미술관이라 칭할 수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플랫폼이라는 기관의 성격으로 인해 시립미술관이 해야 할 공공의 프로젝트와 전시, 교육 등의 역할을 전부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진 미술전문가의 양성 및 인천 지역의 연구가 개인의 책임 및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1,121m²
최대 면적 케어



Filter
청정필터 시스템



Slim
슬림한 디자인



Power
에너지 절약



30m
청정공기 순환

ecover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에코버 사이트로 연결 됩니다.
www.ecover.kr



SCAN ME

넓은 면적, 높은 공간의 학교, 체육관, 미술관,
전시관, 강당, 종합복합쇼핑몰 등 개인이 아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최적화된

에코버 대용량 공기청정 살균기

문의전화 → 1588-2230
제조사 (주) 이지네트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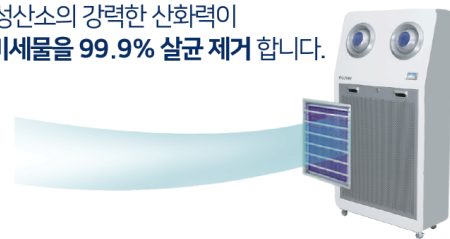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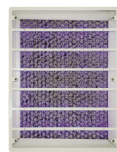


ecover 제품

모델명	제품사이즈 (W*D*H)	청정면적 m ² (평형)
Q 73A	800*275*1500(mm)	240m ² (73)
Q 123A	800*285*1500(mm)	407m ² (123)
Q 242A	1000*450*1900(mm)	799m ² (242)
Q 340A	1180*450*1900(mm)	1,121m ² (340)

광촉매 항균·항바이러스 필터

UV LED를 통한 활성산소의 강력한 산화력이
세균, 바이러스 등 미세물질을 99.9% 살균 제거 합니다.



※ ecover Q A 시리즈는 광촉매 필터(기본), IoT 시스템(옵션)이 제공됩니다.



파트너사 (파트너십 문의 1588-2230)

케이티서비스남부 1811-7234 롯데렌탈(주) 02-1577-5100
(주)에스원 02-1588-3112 퓨처웨어(주) 02-3482-7711
(주)시스원 02-6090-6800 트러스트랩(주) 02-6949-5552
경기종합시스템 031-711-1422 바이오헬스코리아 02-2039-6068
(주)엠케이이시큐리티 02-777-2220 에코버제주 064-742-6338

ISO 9001: 2015 품질경영시스템 / 인증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제품 / S2B 학교장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제품

본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408호
기업부설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412호
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63-28 (장항동)
제조공장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60번길 148-103